

# 이 모 저 모

## 부산지부총회 지난달, 14일

부산지부(지부장·권순직)는 지난달 14일 총회를 개최. 이날 총회에는 8명의 신규회원 가입으로 총 23명의 회원들이 참석, 서울 경동시장내 상설매장이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부산에도 이와 같은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개설하는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 배지부장 연임기로 경북지부회의

경상북도지부(지부장·배성환)는 5월 11일 지부회의를 개최. 지부장 선출을 위해 열린 이날 지부회의에서 경북지부는 배성한 지부장을 연임기로 했다.

## 연천 작목반회의

5월 22일 연천의 김인욱 공관장장이 이끄는 약초작목반 회의가 임진강변에서 열렸다. 재배현장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작목반 회원들의 발을 두루 돌아보고 작황과 밭아여 부를 조사.

## 전북지부회의

전라북도지부(지부장·이승엽)는 지난달 20일 전주에서

지부회의를 개최했다. 50여명의 면단위 출장소장까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북지역 약초재배면적, 생산량 파악과 함께 판로대책방안에 관해 논의. 이승엽 지부장은 『지부와 도공관장 차원에서 산하재배농민들의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검사·검역 제도에 관한 심포지움」

5월 30일 2시 농업기술진흥관 대강당에서는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모임 주최로 「미국의 對韓 WTO제소와 검사·검역제도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장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선통관 후검사제도 채택과 육류 유통기한을 자율에 맡기는 정책수용 등 분쟁의 쟁점을 없애는데 주력할 뿐 검사·검역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근본적인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들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한·미 간의 주장을 더욱 명료히 객관화시키고 우리의 미비한 검사·검역제도의 현황을 들어내어 대책을 구하고자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생약인의소리

## 농민의 눈과 귀, 발이 될 수 있도록

특작물인 약초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경작 한지도 약 3년.

무엇인가 보다확실해야 하며 무엇을 경작하든 분명해야 할것이기때 택한것이 생약재 이오니 결실있게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생약에 관계하시는 모든분들께서 농민에게 확실한 의식을 심어주시고 관리하며 책임을 다 한다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하며 다행한 일입니까. 부디 한사람으로 보지 말고 전국의 모든 영세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의욕이 없는 마음에 믿음과 신뢰성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생약을 관련하는 모든분들께 약초를 가공 개발하여 상품으로도 많이 판매해주시면 국익은 물론이요 농토는 기름지고

농민들의 웃음진 주름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에 관심 있으신 모든분들과 직접 우리를 살펴주는 생약협회의 모든 종사자분들께 지대한 관심으로 일심단결하여 다시 희망을 갖는 농촌! 한지붕 아래 모여사는 농촌을 만들어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어느 허실한 단체가 아닌, 최소한 약초재배자들에게 한하여서 만이라도 농민의 눈과 귀요 발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신다면 내가 심은 약초 한뿌리가 한 생명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아래 정성을 다할것입니다.

협회의 관계자 모든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두창리>  
장 경 희

## 화 축

### 유진걸 부회장 장녀 8일 잠원성당

본회 부회장인 유진걸씨의 장녀 지영양이 6월8일 목요일 오후12시 잠원동성당에서 강철수씨의 사남 상규군과 화축을 밝힌다.

### 권순직 부산지부장 장녀 18일 황실예식장

권순직 부산광역시 지부장의 장녀 화용양은 6월18일 일요일 오전 11시30분 황실예식장 2층 장미실에서 정유섭씨의 장남 준성군과 화축을 밝힌다.

## 제23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그린 웨일리 축제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그린웨일리 축제'가 5월 28일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세계를 푸르게 서울을 푸

로 개최됐다.

28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이날 축제에는 김원준 이문세 해바라기 김현철 등이 출연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

## 『세계를 푸르게 서울을 푸르게』

르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그린스카우트, 삼성전자 주최, KBS, 동아일보, 조흥은행, 국민카드 후원으

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의 문화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 손쉬운 민간요법

빛깔있는 책들 <105> 민간요법 中 발칙



◇ 위는 땡땡이 덩굴이고 오른쪽은 목방기라고 하는 땡땡이 덩굴 뿌리이다.

### 땡땡이

이 식물은 농가에서 조경용보다는 청소를 하는 기구인 빗자루를 만들기 위하여 심었고 또 지금도 많이 심고 있다.

본래의 약성은 독이 없어서 염증을 없애는데 좋은 치료제이며 특히 방광염에 신속한 반응을 보인다. 얼마전 전국의 민간약 조사를 위하여 부산, 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였는데 부산에서는 이 약의 씨보다 대 전체를 잘게 썰어서 달여 마시면 오줌 소태에 좋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즐기보다

는 종자가 더 강한 이뇨, 소염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법 : 한 번의 용량은 최대로 40그램까지 쓸 수 있으나 대개 20그램에 물 한 사발을 붓고 1시간 정도 끓여서 그 물을 공복에 마신다. 이와 같이 하루 3내지 5번 복용하면 곧바로 효력을 본다.

효능 : 오줌 소태는 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땡땡이를 복용하면 열이 내리면서 소변의 배설량이 증가되고 상쾌감을 느끼며 마음에 안정을 찾는다.

만약 임신중에 이와 같은 증상이 있고 손발에서 변열

이 나면서 뜨거운 느낌을 가질 때에도 이 약을 복용하면 쉽게 치유된다.

### 청미래덩굴 뿌리

사용법 : 청미래덩굴뿌리는 토복령(土茯苓 : 중국에서는 발개라고 함)이라고 하는데 이 약 20그램에 물 한 사발을 붓고 1,2시간 끓여서 공복에 마신다. 하루 3번 식사 전이나 공복에 복용한다.

효능 : 맛이 달고 약성은 서늘하며 독이 없다. 이 약은 소변을 못 보면서 미열이 있고 통증과 함께 소변의 색이 뿌옇게 나오는 증상에 유효한 반응을 나타낸다. 본디 이 약은 이뇨 작용보다는 살균력이 강하여 임질이나 매독성 질환에 많이 응용되어 왔다. 세균성으로 인하여 발병한 오줌 소태에 강력한 세균의 억제 작용을 나타내면서 해열 작용을 얻고 또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부인들의 대하증과 관절염에도 신속한 반응을 얻는다.

### 땡땡이덩굴 뿌리

이 약은 전국 각지의 야산에 널리 자라는 식물인데 땅에 뻗는 줄기는 바구니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식물의 뿌리는 약명으로 목방기(木防己)라고 한다.

사용법 : 한 번에 20그램을 넣고 물 한 사발을 붓고 2시간 동안 서서히 끓여서 커피잔으로 하나쯤 되면 공복에 마신다. 이렇게 하루 3번 반복해서 마시면 효험을 얻는다. 임신부와 산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효능 : 이뇨작용과 함께 해열, 혈압 강하 작용을 하는 약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높고 오줌 소태가 있는 사람에게 적중되는 치료제이다. 오줌 소태로 인하여 소변을 잘 못 보고 작열감을 느끼며 소변색이 붉게 나타나고 통증이 있을 때 탁월한 효과를 얻는다. 또 소변을 못 보면서 붓는 증상을 없애는데 요긴한 약으로 관절염, 각기 등의 부종에 많이 활용된다.